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가시나무에도 꽃을 피우시는 주님, 주님은 선하지도, 사랑에 넘치지도, 관대하지도 않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꽃’이라 하십니다. 나무에 물이 오르듯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오르면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외의 것들로 분주했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쓸데없는 지껄임과 천박한 호기심에 자만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죽음의 그늘로도 덮을 수 없었던 주님의 고요함과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는 소란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거칠고 무뎠던 우리 마음은 타인의 아픔에 반응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굳어진 우리 마음을 갈아 얹어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다가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5:14-15 인도자

♠ 교 독 문 15. 시편51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유경순 집사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78.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다함께

성경봉독 눅10:25-37 인도자

마10:40-42 이영란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강도 만난 사람 이성운전도사

환대의 공간 만들기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24. 주님 찾아오셨네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과 말씨를 버리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 지치고 상한 이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 삶의 빛이신 주님, 당신의 오솔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언제나 가까이 다가오시어 사랑으로 보듬고 밝혀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사자처럼 용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의 맥(4)/김기석 목사	말씀 : 김재흥 목사
기도 : 김인걸 권사	기도 : 조항범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방문성 장로	인도자 이호원 권사

3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고광송 이은옥 장혜숙 이춘희
	헌금위원	한완식 이인웅 윤주원 송양진 허정윤 정영선

판단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마태7:1)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좋은 행위는 봉사가 아니라 묵상하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다. 그들의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선행을 보게 될 때, 당신은 변화하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

당신이 좋아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에 대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려고 시도해 보라. 그들에게서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미처 눈여겨보지 못하고 놓쳤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 보라. 친밀함은 진부함과 맹목성과 권태를 낳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치는 수도 있다. 당신은 새롭게 볼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없다.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 보라. 첫째, 그들에게 당신이 싫어하는 어떤 점이 있는지 관찰하고, 공명정대하고 초연하게 그들의 결점을 연구하라. 이것은 그들에게 ‘우쭐거린다, 나태하다, 이기적이다, 거만하다’ 등의 꼬리표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신적인 나태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어떤 사람을 독특한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로 보는 것은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다.

당신은 이러한 결점들을 분명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우선 당신의 객관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그들의 결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결코 결점이 아니며, 사실은 당신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과 틀이 싫어하도록 유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라. 이렇게 한 후에도 여전히 결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과거의 틀, 잘못된 생각과 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태도는 사랑과 용서로 바뀔 것이다.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점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이제 당신이 싫어했기 때문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 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에게 일어나는 태도의 변화나 느낌을 관찰하라. 혐오가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보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제 함께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그들을 보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눈에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관찰하라.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봉사의 행위보다도 무한한 사랑의 선물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변형시키고 창조하는 것이며, 당신과 그들 사이에 확실한 접촉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그들 역시 실제로 변화될 것이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 똑같은 절차를 따라서 해 보라. 결점에 대해서도 노이로제에 대해서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도 심판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이해는 사랑과 용서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기묘한 사랑의 태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향해 변화되고 있다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 안에서 생겨나서 당신을 통해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로 옮겨간다.

--앤소니 드 멜로, <<사랑에 이르는 길>> 중에서

어느 겨울 밤,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바로 다음 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우리 자신이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불빛을 찾고 있으며,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다른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나운 짐승

-구 상

내가 다섯 해나 살다가 온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도 마음도 비춰 보면서
스스로가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나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헌금:

장영속, 윤석철, 장혜숙, 김순복, 이인섭, 조관행, 홍선희, 김현영, 김병희
 김영숙, 윤정박, 이인준, 구기박, 임우, 성준성, 주순, 실홍수, 빈, 윤곽, 김최권, 석해, 현미, 철자, 경옥, 수, 장김방, 임영고, 혜영, 숙길, 민, 동, 우, 방최서, 백왕, 문영원, 혜성, 성혜금, 숙환, 박김안, 전강, 해일, 정영, 수, 경광, 수, 영배, 한이, 윤, 김, 김, 상은, 미, 수, 재, 의, 동, 경, 복, 흥, 정, 백, 윤, 흥, 최, 영, 묘, 수, 복, 희, 선, 진, 선, 영

월정헌금:

김영순, 김이, 종민, 무범, 지명희, 주근, 김승현, 김전, 수영, 김진규, 문금성, 석수, 문복수, 배부, 레이, 윤주, 원자
 최윤선, 이민범, 이희균, 김영한, 전영, 수규, 김경, 정두, 수리, 문훈, 배홍일, 이증, 자

감사헌금:

김재흥, 최서영, 양준하, 방문성, 고관, 숙희, 김우, 수규, 박상호, 왕성환, 강순배
 권미숙, 김인걸, 이영, 이성, 훈, 황, 경, 순, 관, 권, 희, 우, 영, 규, 유, 혜, 경, 박, 성, 범, 희, 박, 미, 영

생일감사헌금: 유혜경, 정완수, 김지윤, 백묘현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장영속, 윤석철, 장혜숙, 김순복, 이인섭, 조관행, 홍선희, 김현영, 김병희
 최문희, 오진훈, 노순옥, 하현철, 최성애, 김지윤, 김중수, 사회봉사부
 (누계: 40,050,000원)

◇ 속회 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송임회	김정섭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박홍엽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김명순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박애순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이영옥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봉배	유혜경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임창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신약성서의 맥** : 오늘 오후 집회는 <마태복음>에 대해 공부합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교육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신입교사교육** : 오늘 오후 3시에 교회학교 신입교사 교육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청과교회의 신앙교육'입니다.
4. **웨슬리 설교** : 3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5. **특별새벽기도회** :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19일(월)부터 3주간 계속됩니다.
6. **신앙실천** :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보듯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7. **주차**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교회 마당에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당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 토요봉사(17일): 김금순 강순배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한상익(결혼기념일), 박창운(생일), 박성면(생일)
무명(생일)

< 새교우 소개 >

2710 김영환 소속: 4남선교회
 2711 전미아 소속: 5여선교회
 2712 최병철 소속: 5남선교회
 2713 허경기 소속: 6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